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임종필

전화 051-780-4243

## 보도자료

2022. 6. 28.(화)

### 제목

## 부산 동백항 보험금 목적 살인 사건 수사 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사건 (제10조 제1항 제2호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
- **금일(6. 28.)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이영화)는 동거남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동거남의 여동생을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피고인을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고,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**
  - ※ 동거남은 범행 이후 사망하여 경찰에서 사건 불송치(공소권없음)

## I 피고인 및 피해자

### ○ 피고인

- A○○(여, 42세)
  - ※ 공범 B○○(남, 43세, 피해자 C의 친오빠, 사망)

### ○ 피해자

- C○○(여, 40세)
- D보험주식회사

## II

## 공소사실 요지

### 1. 자살방조미수 및 보험사기미수

- '22. 4. 18.경 B와 공모하여, B의 여동생 C가 가입한 6억 5,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, C가 그 소유의 X차량을 운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자살을 시도함에 있어, B는 C를 차량에 태워 사건현장인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으로 가고, 피고인은 B를 태워오기 위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구조되어 미수에 그침[자살방조미수]
- '22. 4. 18.경 B와 공모하여, 사고로 X차량이 침수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허위로 사고접수 및 차량 전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 [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]

### 2. 살인 및 자동차매몰

- '22. 5. 3.경 B와 공모하여, 피고인은 피해자C의 기존 자동차보험을 자신의 Y차량으로 이전한 다음 Y차량 명의를 피해자C에게 이전하고, B는 자살시도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C를 Y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동백항으로 가 함께 바다에 추락한 후 B만 탈출하고 피해자C를 익사하게 하여 살해하고, 사람이 현존한 자동차를 매몰시킴 [살인, 자동차매몰]

## III

## 주요 수사경과

- '22. 5. 3. 동백항 차량 추락사건 발생, 울산해경 수사착수
- '22. 5. 31. 당청, 피고인 구속영장 청구('22. 6. 2. 구속영장 발부)
- '22. 6. 10. 울산해경, 구속사건 송치 등
- '22. 6. 28. 당청, 피고인 구속기소

※ 공범인 B는 '22. 6. 3. 사망하여 경찰에서 사건 불송치(공소권없음)

## IV

## 참고사항

-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울산해경과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증거확보 방안 및 적용할 법리 등 쟁점을 긴밀히 협의하여 보험살인 의혹에 대한 실체관계를 규명하였음
- 공범 B의 사망에도, CCTV, 통화내역 분석,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 및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하였고,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임
- 또한,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장례비, 생계비, 학자금 등을 긴급지원하고, 상속 관련 법률지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음
- 한편, 공범 B가 부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낙동강 차량추락사건과 관련하여, '22. 6. 16. 부산서부지청에서 4개 기관(부산동부지청·부산서부지청·울산해경·부산경찰청) 검·경 협의회를 개최하였고, 앞으로도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음